

〈韓國環境法學會 · IPBA 共同主催
'96 世界貿易과 環境에 관한 國際Symposium〉

祝 辭

먼저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環太平洋辯護士協會 데 오도로 레갈라 회장님, 韓國環境法學會 김원주 회장님께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세미나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參席하여 주신 이상규 韓國環境法學會 名譽會長님, 박운흔 大邱大學校 總長님 및 內外貴賓 여러분들께 感謝의 말씀을 드리며, '世界貿易과 環境'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祝賀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92년 6월 유엔環境開發會議 이후, 地球環境問題가 東西冷戰體制 崩壞 後 國際社會의 政治·經濟的 秩序를 규율하는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고, 경제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世界秩序 형성과정에서 先進國과 개발도상국은 한정된 地球環境 容量과 資源에 대한 보다 많은 權利를 確保하기 위하여 치열한 論理競爭과 政策블록화를 具體化하고 있습니다.

'92년 브라질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持續可能한 發展을 위해서는 環境과 貿易政策이 相互 補完的이어야 한다는 基本原則이 表明된 이후, 世界貿易機構(WTO),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유엔環境計劃(UNEP) 등 무역 및 환경관련 國際機構에서는 환경과 무역의 調和에 관한 論議를 활발히 進行하여 왔으며, '95년 1월 세계

무역기구(WTO) 출범은 國際貿易에 있어 광범위한 貿易自由化 實現과 함께 환경과 무역의 連繫問題에 관한 地球的 論議를 본격화, 구체화시켰습니다.

특히, 금년 12월에 싱가포르에서 開催될 WTO 제1차 閣僚會議은 지구환경보호와 무역자유화 促進을 위한 國際協力の 방향을 提示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會議의 結果는 각국의 환경정책 方向과 국제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豫想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한 先進國은 地球環境保護 및 일부 산업의 保護 立場에서 환경적으로 健全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輸入制限措置를 취하고 있는 것이 現實입니다.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國際環境協約이나 國家間 協定 등에 근거하여 취해지는 적절한 措置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환경보호가 自國産業 保護手段의 主目的으로 利用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환경과 무역의 連繫問題는 先進 環境정책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구환경정책을 主導하려는 先進國과, 환경보호보다는 우선 보다 많은 生産을 통하여 經濟發展을 持續적으로 推進하려는 개도국간의 意見對立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對外的으로는 環境保全을 위한 국제논의에서 우리의 立場을 적극 開陣하고, OECD가입 등 높아진 국제위상에 걸맞게 국제적인 相互協助와 支援強化를 통해 지구환경보호에 積極參與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새로운 環境技術을 導入하여 우리의 환경을 改善하고 尖端環境技術을 개발하여 환경산업의 對外進出에도 적극 노력하는 한편, 企業의 環境親和的 제품생산을 誘導하고 환경정책을 先進國 水準으로 向上시키며, 환경보호에 대한 國民意識을 높여 쾌적한 環境造成과 함께 지속가능한 개발을 積極 推進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金泳三 大統領께서도 지난 3월 21일 우리나라가 21세기에 世界中心에 선 一流國家가 되려면 우선 環境模範國家가 되어야 한다고 力說하시고, 우리와 우리 後孫들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安全하고 快適한 自然環境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神聖한 義務라고 強調하시면서, 이를 위해 世界的으로 模範이 되는 “綠色環境의 나라”를 만드는 데 率先垂範하는 「環境大統領」이 되실 것을 宣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는 環境과 貿易의 連繫 등 世界적인 흐름을 회피하거나, 이에 저항하기보다는 適應하고 挑戰하여 깨끗한 환경의 惠澤과 함께 福社國家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活用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환경과 무역의 相互調和를 위한 우리나라의 役割과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寄與方法을 摸索하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環境·貿易 政策方向에 대한 심도있는 論議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세미나에 參席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感謝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세미나에서 좋은 成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祝辭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1996. 11. 4.

環境部長官 鄭宗澤